

지스트 과학문화주간 맞아 유익한 창업행사 개최

- 지스트 창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O 포럼과 스타트업나이트,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려



▲ <GIST CEO 포럼>과 <GIST 스타트업 나이트(START-UP NIGHT)>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룡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를 대표하는 창업 관련 행사인 <GIST CEO 포럼>과 <GIST 스타트업 나이트(START-UP NIGHT)>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스트 창업진흥센터가 주최하는 두 행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지스트 과학문화주간>을 맞아 지난 11월 11일(금) 오룡관에서 지스트 대학(원)생들과 투자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올해 7회째로 호남엔젤리더스포럼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GIST CEO 포럼>은 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술창업팀들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에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김채광 부회장이 '엔젤투자자 자금조달하기'를 주제로 연사로 나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방식으로서 엔젤투자자를 만나는 방식과 엔젤투자자들이 스타업을 찾는 매커니즘에 대해 소개했으며,

호남권엔젤투자허브의 서일 센터장은 '호남권 정책펀드' 소개를 통해 광주·전남 및 전북, 제주권역의 정책펀드 결성 내용과 자금 규모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기술창업 기반의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과제로 잘 알려진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를 수행하는 ▲(주)시고르자브종 홍주영 대표 ▲(주)그룹바이에이치알의 임진하 대표 ▲(주)클라우드스톤의 김민준 대표와 송대욱 이사 등 **지스트 출신 창업가들이 TIPS에 선정된 과정을 소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지스트 대학(원)생들을 위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 토크콘서트에서 팁스(TIPS)를 수행하는 ▲(주)클라우드스톤의 김민준 대표와 송대욱 이사 ▲(주)시고르자브종 홍주영 대표 ▲(주)그룹바이에이치알의 임진하 대표 등 **지스트 출신 창업가들이 TIPS에 선정된 과정을 소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지스트 대학(원)생들을 위한 조언을 들려주고 있다.

<GIST CEO 포럼>에 이어 진행된 <스타트업 나이트>는 **지스트 학생자치 창업기구인 GGE(Growing GIST Entrepreneur)에서** 기획한 행사로,

‘밤샘게임스튜디오(대표 이하윤)’ 등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지스트 학생들이 직접 8곳의 시제품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스타트업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산학협력인턴십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창업문화 확산과 유익한 창업 정보 제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됐다.



▲ 지스트 학생자치 창업기구인 GGE(Growing GIST Entrepreneur)에서 기획한 <GIST 스타트업 나이트(START-UP NIGHT)> 참여 부스가 오룡관 로비에 전시되었다.

조병관 창업진흥센터장은 "이번 창업 행사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어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익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행사를 통해 지스트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창업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